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렴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운데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08호  
서기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내 한생각에 지옥·극락 달려있어

### 피안의 세계 정말 있는지요

**문**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는 오단강을 건너서 만나리라 했고, 불교에서는 고택을 건너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정말로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생에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물질사회에서 살다 보니 의식이 모두 물질에만 치중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체가 없다는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지도 못하고 때문에 욕심내고 무서워하고 집착하며 고통스러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살면 의식들이 다 다음 생에 자신을 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관습에 젖고 기복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체가 없는 혼백인데도 죽으면 자기가 체가 있는 양, 물이 나타나면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배울 때를 기다리느라 백생이고, 오백생이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다고 배가 옵니까? 한 생각, 한 할 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의 의식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이 타 죽을 까봐 못 건너가기도 하죠. 우주의 모두가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이고,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생명의 근본이 없는 돌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했으니 놀아라, 쉬어라 하고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아 제이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했는데 마음이 체가 없는데 건너갈 건 뭐 있고 건너를 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공해서 없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밖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집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뚜렷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와 같습니다.

생사에 관한 것을 한번 뛰어넘어서, 물질 세계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로 다시 뛰어넘으면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놔서 돌아서 죽은 세상까지, 살아있는 세상과 죽은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참나찰나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 100%를 같이 굴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 소리를 자주 하는데 모두가 내 아님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더불어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되어, 저승이고 이승이고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극락 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지옥이요, 내 한생각에 바로 승천입니다. 생각,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감응이 되시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물리가 터지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구요. 모두가 나로부터, 내 뿌리가 씩이 있는데, 그 씩이 뿌리를 먼저 어디를 믿습니까? 탄 나무를 믿고, 탄 이름을 믿고, 탄 형상을 믿어서야 에너지가 그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무 제 뿌리에서만 제 나무를 푸르게 살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 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거고, 또는 물리가 터지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위로 올려 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면서 자기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넘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늘, 바깥으로 항상 찾는다면 아무 공덕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날 때마다 자아(此岸)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한 백자장 사이도 안되는 것을, 한철나도 안되는 것을, 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따개의 씨로 인해 수박이 된 것입니다. 작년의 씨가 아니라면 어떻게 올해(현재)의 수박이 생겼겠습니까. 그 수박은 놔두고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았다면 아무리 애쓴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의 수박에 씨와 살과 가죽이 한 데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안에 자기 씨가 있는 겁니다.

### 참회기도를 하려합니다

**문**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부한지 얼마 안되는 불자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열불수행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 아직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참회기도를 하려 합니다. 자비도량참법으로 기도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대부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상대가 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내면에 모든 걸 맡겨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험하고 나가는 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참선입니다. 일하면서 하면 행선, 누워서 하면 좌선, 서서 하면 입선, 앉아서 하면 화선.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 참선이죠.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는 각자 여러분이 없었던면 무효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그 소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진리죠. 진리가 끝난데 없이 나오면서 돌아갑니다. 그대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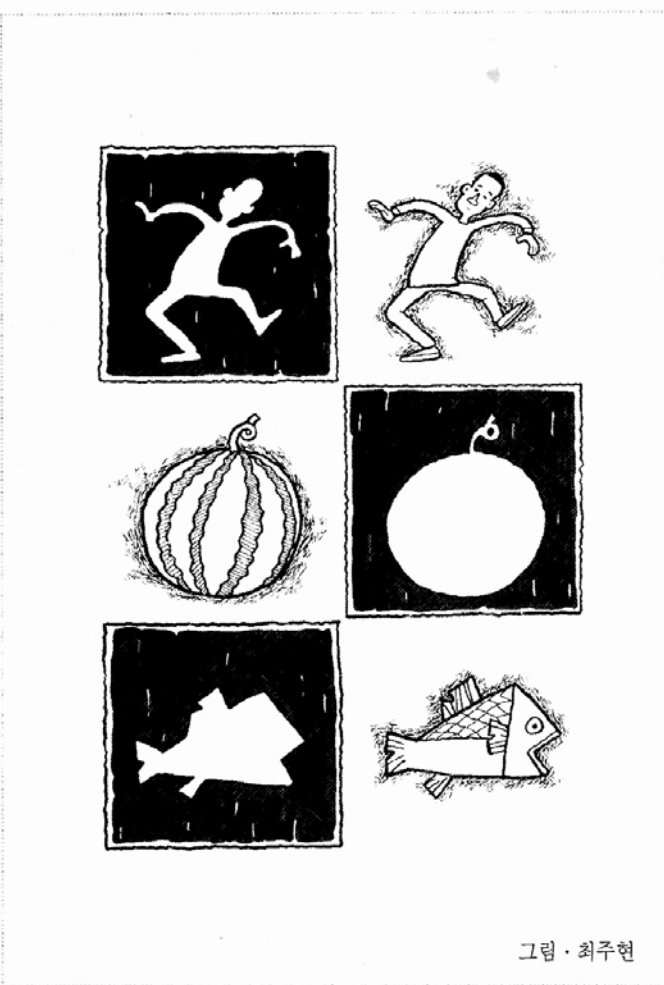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마음 깊은 내면에 모두 맡겨놓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실생활속에서 행하는게 바로 참선

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고? 하고 물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도 하고 여러 과학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기에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모든 우주의 근본, 우리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법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 참선은 어떤 것인가? 생활 참선! 여러 마디 말을 쏙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근원에서 들이고 내는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공이다 한다면 주인(主人)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공(空)은 여러분의 활동할 때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참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되놓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일 할 때도 그렇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누워 있으면서도 항상,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하고 있

다고 되놓는 것이 바로 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아,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놔둘 때에 그게 들려놓는 겁니다. 좋게 생각이 나고 일이 잘 돌아갈 땐 참 감사해 하고 감사하게 놓고 말입니다.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만이 해줄 수 있다.' 고 관하고 놓을 때, 그것이 바로 관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이고 용도에 따라 실행되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조그마한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닦이는 대로 지켜보면서 생활 속에서 실험하면서 체험하신다면, 용도에 따라 참회가 필요할 때면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스승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맡겨 이끌어 줄 것이니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구하고 참회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내면의 그 보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공부를 하세요.

### 관해도 친구들이 계속 떠들어

**문** 저는 중부경남 지원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떠들어서 제가 '떠들지 않게 해.' 라고 관해도 계속 더 떠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 학생이 질문을 잘했구나.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공부 좀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주인공에 아무리 관해도 안된다고 하거든. 그것은 믿음이야.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지. 그러고는 걸로 아무리 주인공, 주인공 불려도 안되더라 하면서 방방방방 댕단 말이야. 그 방방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 주인공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 남이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하는 거 말아야.

나무들이 다른 나무보고 믿고 살지 않지? 자기 뿌리에 의지하고 살지. 그렇게 조그만 나뭇잎 이파리도 본래 뿌리에 의해서 다 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뿌리에다가 다 놓으면 될 것을, 그러면 거름이 골고루 다 퍼져서 푸르게 살 수 있는데 모두들 입으로만 주인공, 주인공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문제가, 모두 자기와 같이 귀중하게, 더 위로도 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고 아주 자기와 같이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제일 필요할 거란다. 그래서 주인공을 높이 보지도 말고 내려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벌써 나와 상대가 있으니 둘이 된다. 그러니 해 주시요가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라고 했지? 우리가 결정을 짓는 데 문제가 있는 거란다. 지금 물질 세계에서 한 번다 된다 하지, 그런데 진짜로 믿고 결정을 짓는다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정을 지어야 돼. 이젠 지금 물질 세계에서 안 되는 일이나 안 될 거야, 관해도 안될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물러서는 것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에 얼마나 해, 그러면 오히려 자기 모습을 더 살펴봐도 된다. 나도 남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정말 자유스럽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도 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이유**  
**문** 저는 지원에서 학생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외할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마음을 많이 내는데, 스님께서는 마음 많이 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꼭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지내는 제사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예의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불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할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내면 외할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지도 궁금해요.

### 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느냐고 물었는데

그저는 반드시 지내야 되겠지.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하라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님은 신도님들더러 음식을 많이 장만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네 뭐 어쩌네 하면서 징징거리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차리나, 이렇게 성가시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는 조상님들도 싫어하시니까 웃는 낯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해라 이거야.

항을 피우고 초를 켜고 그 앞에 앉아서 자기를 있게 한 모든 은혜, 조상의 은혜, 어떤 때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고, 부모의 제사날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 부모가 다 길러서 학교 공부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길러주시느라고 그만큼 노고를 했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나의 근원인 조상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제사지낼 때, 지금 현재 모두 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지극하게 관하는 그 마음은 일체 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의 마음이 아니게,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이 탁 뚫렸으니 뭘 더 바라겠나. 그 영령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덕으로 인해서 모두가 일체 제불과 한자리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영령들도 더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손들이 그렇게만 지극하게 한다면 이 세상 어느 곳곳에 다 내내도 손색이 없게 되는 거거든. 나같이 어리고 힘없는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하고 의심하지 마. 자동적으로 근본에다 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끔 돼 있어, 본래.

그래서 선원에서는 정초에 조상님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게 촛불재를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도 돌 아나게 밝아질 수 있게 불을 켜는 거야. 물질의 조만 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본을 완벽하게 믿고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기고 지극하게 마음의 불을 밝힌다면 우리 마음이 벌써 다 그분들을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하고 달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가 없이, 더 차웠다 적게 차웠다 없이, 즉 말하자면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까? 하고 의심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든 촛불재를 하든 지극하게, 일체 돌이 아닌 그 주인공 자리에서 다 밝게 인도하라고 관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유전자 조작 탈 없었는지요

**문** 스님 가르침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인공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한 말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전 우주 전체가 처음에 미생물이었을 때, 암흑 세계에서 바람과 흙과 불과 물이 뭉쳐 서로 돌아다닐 때에 어떻게 생명력이 생겨났겠습니까? 블랙홀이라는 별성은 어째서 그렇게 별을 많이 낳았느냐, 별을 낳아서 모두 내려보내느냐, 할 때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진화력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영원한 생명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냥 있는 거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안목을 넘겨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을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이시구